

국악, 시민 속으로 '한걸음 가까이'



전남도립국악단의 일월(日月) '입춤소' 공연(왼쪽)과 고깔 설장구놀이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전남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
지구온난화 등 사회 화두 담아...실내악·판굿놀이 등 다채
6월3일~8월까지 매주 토요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

국악이라고 하면 자칫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전통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악은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대의 문제에도 천착한다.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로 돌아온다. 오는 3일부터 8월말까지(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도립국악단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즌2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류형선 예술감독은 "그린 국악"은 보다 예술적이고 대중적인 국악으로 21세기 감수성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오늘날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성찰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린

국악'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작품 속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투영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오늘의 세기를 가장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한 시대라 하지만 그만큼 폐해 또한 많기 때문에 문명 성장적 요소 또한 가미했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흥미롭다. 먼저 6월은 '일상에서 노는 이야기', '미래가 기억할 만한 '오늘'의 전통', '그린국악의 비단길' 등 각각 소주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전래 영아 놀이노래', 설장구춤 '산향', 삼도사물놀이를 비롯해 국악 실내악, 이면가락 판소리, 판굿놀이 등이 펼쳐진다. 판소리합창, 가야금병창 2중주, 국악 실내악, 가야금 합주, 진유림류 입춤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월 24일에는 단오를 맞아 최근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젊은 줄판대 남창동청년 명인을 초청해 화려한 줄타기를 선보인다. 7월은 '삶에 대한 공감의 깊이, 그리고 이면을 그리는 소리', '흐름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물 흐르는 내력', '광대의 정원에서 부채춤 추는 무희들'로 이루어져 있다. 진행될 프로그램은 이면가락 연창 판소리, 가야금 병창, 권태포리리 아쟁산조, 비구춤, 타악 앙상블, 국악관현악 합창, 채상 설장구놀이, 부채춤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7월 29일에는 무용특집으로 지난 2022년 정기공연 작품으로 첫 선을 보인 '초연: 산이 다한 곳, 구름 한 송이'를 다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8월에는 남도소리올림픽 기획공연 외에도 국악을 모티브로 한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당신이 답이다' 시즌 3이 진행된다. 한국사 일타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나와 당신의 오늘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를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8년 전 취재자 상하이를 방문한 기자는 '캐타이 극장'이란 오래된 영화관을 발견했다. 갈색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런 외벽과 금박으로 마감된 건물 정면의 'CATHAY' 로고는 주변 건물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뭐랄까, 영화관이라기 보다는 박물관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1932년 영·미 영화 전용관으로 탄생한 극장은 1990년대 초 근대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였다. 개관 이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다양성(예술)영화관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90여 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캐타이극장은 여전히 핫플레이스다. 하늘을 찌를듯한 마천루

열혈팬이었다. 지금도 네이버 카페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500여명의 후원자가 꾸준히 마음을 보태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시네마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홍수 속에서도 광주극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건 다양성 영화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은 '설리의 모든 것', '위로공단' 등 색깔있는 영화와 지난 2021년 상영시간 5시간이 넘는 '다플로르' 등의 대작들을 '지켜낸 건' 바로 광주극장이다. 광주 동구청이 오는 2025년 개관 90주년을 앞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가 즐비한 상하이에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간직한 채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영화관 1층은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매장과 편집숍으로 꾸며졌지만 '본체'인 극장에는 클래식 영화들이 상영돼 '올드 & 뉴'가 공존한다. 캐타이극장을 본 순간, 광주 총장로 5가의 광주극장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도 그럴것이 캐타이 극장과 광주극장은 수십여 년의 역사와 예술영화관 등 유사한 점이 많다. 광주읍이 광주부(府)로 승격하던 1935년 10월1일 문을 연 광주극장은 올해로 88주년을 맞은 광주의 '살아있는' 역사다. 특히 현존하는 국내 극장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광주극장의 시간'은 녹록치 않았다.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방문객들이 줄어 들면서 한때 추억의 박제된 공간으로 문단을 치러 놓였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극장을 지킨 건

돈 광주극장을 '부활' 시키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극장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광주극장 기금사업'으로 명시하고 전국민의 기부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광주극장을 근현대 문화자원으로 등록하고, 역사성이 있고 인문적 가치를 지닌 문화공간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기부금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노후된 영사기와 조명시설 등을 교체하고 오래된 건물도 개보수할 예정이다. 이번 동구청의 '광주극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교롭게도 최근 강원도 원주시가 1963년 문을 연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기로 발표한 즈음에 공개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수십여 년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오래된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문화자산이다. 모쪼록, 90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잇는 동구의 '광주극장 부활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란다. <문화·여행국장, 선임기자>

제 68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중창 입상자 <심사위원> 임선애(사)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 부회장	김능혁(목포대 명예교수) 김연주(초당대 명예교수)	2 한가연 외 13명(초중고연합)	◇ 현악 중주
◇ 중창 ▲ 최고상 3 이승현 외 12명(광주송원초)	◇ 관악 중주 ▲ 은상 2 염연아 외 1명(광주송원초)	◇ 현악 중주(바이올린) ▲ 금상 1 박선후 외 3명(초등연합)	▲ 금상 2 박태이 외 13명(광주송원초)
▲ 금상 1 김하린 외 12명(광주송원초)	3 허시원 외 10명(광주송원초)	2 한준우 외 7명(초등연합)	▲ 금상 3 김정운 외 13명(살레시오초)
2 김서영 외 13명(광주삼육초)	4 전서현 외 9명(초중연합)	▲ 동상 3 이은 외 11명(살레시오초)	▲ 은상 1 송혜령 외 9명(전주교대전주부설초)
중주 입상자 <심사위원>	◇ 관현악 중주 ▲ 금상 1 조성원 외 13명(광주삼육초)	◇ 현악 중주(첼로) ▲ 금상 2 임희영 외 4명(초등연합)	◇ 양악,국악 중주 ▲ 금상 1 김하은 외 13명(다시초)

6월 한달간 광주시민 인문학 강좌

리얼리티(실현)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 인문학이 103기 정기강좌를 1일부터 30일까지 연다.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화, 수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 월요일은 목의 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신체화된 마음에 관하여' (5, 19일)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목요일에는 위상복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맑스 자본론' 강독-정치경제학 비판' (1, 15, 29일)을 진행하며 금요일은 '하루키 월드' (9, 23일) 시간으로 신우진 이사장이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토요일은 신광용 책임연구원 등이 '인문실현



- '인정투쟁'의 진실' (3, 17일)을 진행하며 일요일은 진정한 이사장 등과 함께 '남도도 떠나 는 인문 여행'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6월 명혜영인문교실도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일본문화산책', '책글동아리', '영화인문학'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